



**기보-OpenAI, AI 생태계 활성화 '맞손'**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OpenAI와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중호 기보 이사장(오른쪽)이 제이슨 권(Jason Kwon) 오픈AI 최고 전략책임자(CSO)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롯데, 'mom' 관한 가족상' 시상식 열어**

롯데는 26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1회 롯데 mom(맘) 관한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더불어민주당 당 학영 국회의원,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황영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등이 참석했다. /롯데



**KGC-농진청, K-인삼·농생명자원 사업화 확대**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 1위 기업인 KGC가 농촌진흥청과 손잡고 K-인삼과 농생명자원의 사업화 확대에 나선다. 양측은 신규 기능성 소재 발굴부터 건강기능식품 개발, 생산기술 고도화까지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해 국내 농생명자원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GC



**GS건설, 예비 안전보건 전문가 대상 직무체험**

GS건설은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안전혁신헌고에서 경북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재학생 22명을 초청해 건설업 안전보건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주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GS건설



**우리은행, '대장-흥대 광역철도' 금융약정식**

우리은행은 총 1조9131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대장-흥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주선기관으로 금융약정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명수 우리은행 IB그룹장(왼쪽 다섯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 현대차, '아이오닉 5·9'로 경남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

**산림청-트리플래닛과 '맞손' 3년간 숲 조성 등 산림 복원 추진**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기술을 활용한 환경 복원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는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청, 트리플래닛과 '산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친환경 사회공헌 사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현대차가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숲 조성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오닉 포레스트'의 일환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기술, 글로벌 브랜드, 환경 복원을 하나로 엮은 CSV 프로젝트 '아이오닉 포레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매립지 숲 조성에서 출발해 13개국에 100만 그루 식재를 달성했고, 드론-데이터 기반 복원과 글로벌 캠페인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모니터링 드론 스테이션' 차량. /현대차

현대차와산림청, 트리플래닛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경상남도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숲 조성 등의 산림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전기차 기반 드론 통합 솔루션인 '아이오닉 드론 스테이션'을 통해 씨드블(황토와 함께 공 형태로 빗

은 친환경 씨앗) 600kg를 안동·산청·울진 등에 투하·식재하고, 산림 성장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아이오닉 드론 스테이션은 현대차 아이오닉5·9를 기반으로 제작된 산림 특장차량이다. 내부에 구축된 드론 관제 시스템으로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

역에 식재가 가능하고, 외부로 전력을 제공하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통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현대차는 2023년 '아이오닉5 모니터링 드론 스테이션'을 처음 도입한데 이어 지난해 '아이오닉 9 씨드블 드론 스테이션'을 추가하며 스마트 산림 생태복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차는 산불 피해지역 복원 활동과 함께 ▲ICT 기반 산림 관리 ▲스마트 산림 생태 복원 ▲밀원 수림 조성 및 지역 상생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형 산불 피해 예방이라는 과제에 맞춰 첨단 드론 기술과 친환경 차량을 접목한 새로운 산림복원 솔루션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업계 최고 평가 메트로미디어-파능, 언론분야서 AI 활용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감동·우수콜센터 동시 선정**

삼성전자서비스가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와 고객 맞춤형 지원을 앞세워 국내 콜센터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업계 최장 기록을 이어갔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담 고도화와 맞춤형 고객 지원 강화가 장기 연속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26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가전제품 서비스업계 최초로 유일하게 '고객감동콜센터'와 '한국의 우수콜센터'에 동시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고객감동콜센터'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는 2010년부터 17년 연속 선정된 대기록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담사가 2026 KSGI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전문 평가위원이 기업별 콜센터의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 조사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발표하는 제도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품질 영역에서 업계 최고 평가를 받은 데 이어 공감 영역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둬 '고객감동콜센터'와 '한국의 우수콜센터'에 모두 선정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AI 기반 언론 콘텐츠 제작 모델 구축**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대표이사 이장규)와 인공지능(AI) 전문업체 파능(대표 최창현)은 AI 콘텐츠 제작 플랫폼 '파능'의 언론 분야 활용 및 상호 발전을 위하여 27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메트로미디어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파능은 AI 콘텐츠 제작 플랫폼 '파능 AI'를 언론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실사용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 및 브랜드 홍보 효과를 얻고, ㈜메트로미디어는 '파능 AI'를 활용해 기사 내 AI 이미지·영상 콘텐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언론 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이사(오른쪽)와 파능 이혜경 이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메트로미디어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트로미디어

현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해 AI 기반 언론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 GM '우수 협력사'에 국내기업 20곳 선정

**현대모비스·현대글로벌 등 수상 GM 수출 부품규모 年 1.4조 달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연례 협력사 평가에서 전체 수상사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GM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2025 올해의 우수 협력사' 시상식에서 전 세계 협력사 103개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협력사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벌, HIL만도, 남천알미늄 자동차사업부 등 20개사로 집계됐다.

국내 수상사는 2005년 5개사에서 2025년 20개사로 확대됐으며, 최근 3년 연속 전체 수상사의 약 20%를 차지했다.

GM의 올해의 우수 협력사는 전 세계 6000여개 협력사 가운데 성과와 혁신, 품질, 지속가능성, 실행력, 회복력, 수익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국내 협력사의 글로벌 공급망 기여

도도 커지고 있다. 국내 협력사들이 GM 글로벌 네트워크로 직접 수출하는 부품 규모는 연간 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국GM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66개 직거래 부품 협력사와 1400개 이상의 간접·물류 협력사를 통해 약 19조원 규모의 부품을 구매했다.

방선일 한국GM 구매 부문 부사장은 "국내 협력사들이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내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보여준다"며 "한국GM은 부품과 물류, 생산 역량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국내 협력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국GM은 2018년 전북 군산공장 폐쇄하고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 지 8년 만에 첫 배당에 나서면서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 현대모비스, 장애인 표준사업장 출범

**'모아빛' 운영... 지분 100% 출자**

현대모비스가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표준사업장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경기 의왕연구소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모아빛'을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모아빛 설립을 위해 지분 100%를 직접 출자했다.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체계적인 직무 교육·경력 개발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전문 인재로 육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모아빛은 현대모비스의 사업 방향과 연계된 자동차 특화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첫 사업으로 스텝세차를 선정했으며 마복·의왕연구소 및 창원공장에 전용 세차장을 구축하고 발달장애인 근로자 60명을 채용했다.

기존 외부 위탁 방식이었던 번역 업무를 모아빛 주요 사업으로 전환해 장애인 고용 기반을 넓혔으며 위탁 운영하던 장애인 음악단도 모아빛 소속으로 직접 고용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더불어 근무 편의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전용 셔틀버스와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했다. 장애 자녀 학자금, 종합건강검진, 정신건강 케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정서적 안정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모아빛은 올해까지 근로자 1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인사 ◆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개발과장 박소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진충모 ◆ iM증권 ◇전무소경영전략부부장 김주욱 ◇상무부 △경영지원본부장 정호철 ◇실장 △영남영업실장 정성원

부음 ▲김영옥씨 별세, 이종원씨 배우자상, 이건수·보경·문경·명아씨 모친상, 김형주씨 시모상, 김용서·최원복·이석원(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씨 장모상 = 27일 오전, 경북대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29일. 053-200-6464